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1면	"전세계 청소년 축제 성공, 다같이 힘 모아야"	1
강원도민일보	03면	"2018 평창올림픽 저력 바탕 반드시 성공개최 이루자"	2
江原日報	01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道 누비며 '흥행 열기' 확산	3
江原日報	01면	강원도 입성한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4
江原日報	04면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4
스포츠서울	온라인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석회석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	5
세계타임즈	온라인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내일부터 도·산하기관 76개 부서·기관 행감 돌입	7
江原日報	01면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어촌 활성화 특례 발굴"	7
江原日報	04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위한 해양수산분야 토론회	7
江原日報	12면	강릉화폐전시관 개관식	8
강원도민일보	14면	영월군, 무곡 윤기영 의병장 공적비 제막	8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학교장의 권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9
江原日報	22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 무엇을 해야하는가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1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1
江原日報	01면	[광고]	11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빈대 출몰' 우려 선제 대응	12
江原日報	01면	강원자치도~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급물살'	13
江原日報	03면	강원자치도~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급물살'	13
江原日報	01면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 돌아오는 길 역사의 현장 속으로	14
江原日報	02면	오대산서 펼쳐질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 417년 전으로 ...	15
강원도민일보	04면	평창 고랭지 무값 폭락... "밭 정리하고 그냥 뽑아가세요"	16
강원도민일보	05면	때아닌 '11월 물난리' 도전역 강풍·호우 피해 속수무책	17
강원도민일보	05면	강풍에 밀려난 승용차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치솟는 물가 도미노현상 막아야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군(軍) 유희지, 지역 발전 활용해야	19

江原日報	19면	[사설] 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선택과 집중이 중요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입성, 강원인 하나 되자	21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01

“전세계 청소년 축제 성공, 다같이 힘 모아야”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붐업

2024 강원대회 성화 강원 입성
성화맞이 행사 각계각층 참석
‘나에게 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개막까지 붐업 확산 캠페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2024 강원대회) 성화가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치고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 강원도내 붐업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등 도단위 기관단체장들과 각계 인사들은 대회 70여 일을 앞두고 본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참여하면서 강원도내 붐업 첫 시작을 알렸다.

강원도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일 오후 도청 분수광장에서 2024 강원대회 성화 맞이 및 투어 안전 기원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이관표 2024 강원대회 조직위 기획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권 의장이 2024 강원대회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성화램프를 전달받아 김 지사에게 성화봉을 건넸다. 이어 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6일 강원도청에 도착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등 도단위 기관단체장들과 각계 인사들이 강원도민일보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붐업 캠페인에 동참했다.

서영

지사와 권 의장, 신 교육감은 광장에 마련된 성화로에 불을 붙이며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 세계 청소년 축제를 열게 돼 영광이다”며 “다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 개최하자”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2024 강원대회를 통해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꿈을 그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관표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조직위 출범이 었그제 같은데 74일밖에 안남았다. 조직위 신발끈을 다시 묶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원도립무용단과 봉의여중 댄스팀은 오프닝·축하공연을 펼쳤다. 성화 맞이 행사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본지 주관의 2024 강원대회 붐업 캠페인 ‘나에게 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에 참여, 강원대회 성공 개최 및 붐업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본지는 2024 강원대회 개막 (내년 1월 19일)까지도 전역에서 2024 조직위와 함께 2024 강원대회 붐업 캠페인을 진행, 전 국민과 전 도민의 열기를 이끌 계획이다.

한편 강원지역 성화 투어는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내년 1월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특별 투어가 진행된다. 심예섭·김덕형 ▶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2018 평창올림픽 저력 바탕 반드시 성공개최 이루자”

2023 11 07 ()

03

GANGWON 2024 강원도민과 함께 봄엽
나에게 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김 “특자도의 알파이자 오메가”
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첫 발”
신 “선수 세계 향한 꿈 키울 기회”

본지 주관으로 6일부터 시작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봄엽 캠페인-‘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을 통해 2024 강원대회 봄엽이 고조되며 각계의 특별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도전역에서 봄엽 캠페인을 진행, 2024 강원대회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봄엽 캠페인에 참여한 도단위 기관 단체장들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지사는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이라는 물음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알파(α)요, 오메가(Ω)다. 아자 아자!!!”라고 적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 글자(Ω)를 나타낸 말로서 ‘처음과 나중’, ‘완전함’, ‘충만함’, ‘전 존재’ 등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한 6일, 본지 주관으로 ‘2024 강원대회 봄엽 캠페인-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이 시작된 가운데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서영

상징한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해석은 2024 강원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제 스포츠 대회가자 윤석열 정부 임기내 치러지는 첫 국제 스포츠 대회라는 점을 강조,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나타낸 것이다.

김 지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한 성화가 드디어 우리 (강원도)에 오니 실감이 난다”며 “성화는 도전역을 돌다 74일 후에 개최식 때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2024 강원대회 봄엽 캠페인에 참

여하게 돼 기쁘다”며 2024 봄엽 캠페인을 힘껏 응원했다.

■권혁열 도의장

권혁열 도의장에게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의 의미는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첫걸음”이라고 정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24 강원대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연결시킨 것이다.

권 의장은 ‘아테네에서 출발한 성화

가 강원도에 도착하게 된 것을 3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이 앞으로 74일 남았다.

세계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모아야겠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 개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

신경호 도교육감은 “선수들이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기회”라고 2024 강원대회를 정의했다. 신 교육감은 “나에게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이란!”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적으면서

도내 성화봉송 일정 (자료=강원특별자치도)

지역명	행사일	장소
속초	11.7(화)	설악고
영월	11.10(금)	석정여중
화천	11.14(화)	화천체육관
횡성	11.21(화)	둔내중
홍천	11.23(목)	홍천종합체육관
동해	11.24(금)	목호중
원주	11.28(화)	육민관고
고성	11.29(수)	고성종합체육관
인제	11.30(목)	인제고
춘천	12.5(화)	강원체고
철원	12.12(화)	철원실내체육관
삼척	12.14(목)	삼일고
양양	12.20(수)	양양군실내체육관
평창	12.21(목)	진부고
양구	12.22(금)	양구문화체육회관
태백	12.26(화)	상장중
정선	12.27(수)	정선중·고등학교
강릉	12.28(목)	강릉중

“우리 선수들이 세계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우정을 쌓으며, 세계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신 교육감은 “2024 강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이 학교 방학 중이지만, 학생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화·김덕형 ▶영상 kado.net

2023 11 07 ()

江原日報

01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도 누비며 ‘흥행 열기’ 확산

성화맞이 행사 성황리 열려

오늘 속초 설악고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강원 순회

속보=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밝힐 성화가 6일 개최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본보 6일자 1면 등 보도)했다. 지난달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34일 만에 개최지에 도착,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불업이 본격화된다.

도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도청 분수광장에서 성화맞이 및 투어 안전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최민철 도소방본부장, 박재민 대회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산림엑스포에 이어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것을 다짐했다.

이관표 조직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화램프를 전달받은 김진태 지사, 권혁열 의장, 신경호 교육감은 함께 성화를 점화했다. 김진태 지사는 “성화를 맞이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청소년올림픽은 평생 단 한 번밖

에 출전하지 못하는 대회다. 이런 의미 있는 축제를 강원자치도가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권혁열 의장은 “성화가 강원자치도까지 오게 된 것을 300만 강원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글로벌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평창올림픽 성공의 저력으로 이번 대회도 성공 개최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기원하며 노란 넥타이를 매고 나온 신경호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 아이들과 경쟁하며 소통하고 우정을 쌓길 바란다. 특히, 이번 대회가 강원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환영행사를 마친 성화는 7일 오후 1시30분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원지역 순회 투어에 돌입한다. 투어는 18개 시·군별로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과 함께 점화식과 올림픽 가치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군 성화투어는 다음 달 28일 강릉중에서 막을 내린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 개막한다. 권순찬기자



강원도 입성한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국내 광역도시 투어를 마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착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화맞이 환영행사가 6일 도청 분수광장에서 열려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내빈과 축하공연을 선보인 청소년들이 성화와 함께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2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본공사 착공은 내년 2~3월 진행
1,172억 투입 2025년 완공 목표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오는 20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에서 열린다. 착공식과는 별도로 시공사 선정 및 본공사 착공은 내년 2~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은 20일 오후 2시 오색지구 하부정류장에서 개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관계 기관장과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이양수 국회의원 등 도출신 국회의원, 김진하 양양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군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착공식에서는 사업 경과보고

를 시작으로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대선 1호 공약사업이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과 보류, 재추진 등 적지않은 부침을 겪어왔으나, 올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주요 행정절차를 끝냈다. 다만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간은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30m)까지 3.3km다. 완공 목표는 2025년이다. 총 사업비 1,172억원(도비 224억원·군비 948억원)이 투입된다.

정준화 친환경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환경단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2023 11 06 ()

스포츠서울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남부권 석회석 폐광지, ‘석회석 폐광지역특별법’ 제정해야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오는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 전역의 석회석 폐광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면서, 강원도 산하는 만천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멘트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석회석 생산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 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 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원을 나눠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것도 방대한 피해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acdcok4021@sportsseoul.com

2023 11 06 ()

세계타임즈

“석회석 폐광지, 국가가 나서야!”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오는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 전역의 석회석 폐광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면서, 강원도 산하는 만천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시멘트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석회석 생산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 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내어 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면서,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폐광지역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재원을 나눠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것도 방대한 피해를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03

도의회, 내일부터 도·산하기관 76개 부서·기관 행감 돌입

상임위 1418건 감사자료 요청

23일부터 내년 예산안·추경 심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강원도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8일~21일)에 돌입한다. 7일 시작하는 제324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39일간 진행된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대상 기관은 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 총 76개 부서 및 기관이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총 1418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했다. 지난해 1210건보다 208건이 늘었다. 감사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23일부터는 조례와 내년도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돼있다. 도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분석실 조성 등을 담은 '수산물안전성조사조례'(대표발의 김용복), 시·군 자율방범활동 경비 지원을 담은 '자율방범활동지원조례개정안'(대표발의 박찬홍), 건축허가 사전 승인대상을 확대하

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최재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급발진 의심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용래) 등이 상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조례도 있다. 기존엔 회의규칙에 명시됐던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조례로 명시된다. 또, 기존 집행부와 협약차원에서 대상을 선정하던 인사청문 대상도 조례 심의가 예고돼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확대를 주장해와 청문

범위도 관심이다.

이밖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명칭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하고, 도내 청년의 연령범위를 '18세 이상 45세 이하(기존 39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도 상정 예고됐다.

또, 강원도는 전통시장을 공공기관 '물품 우선구매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을 '구매촉진'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올렸다. 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랐다 는 설명이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 11 07 ()

01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어촌 활성화 특례 발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위한 해양수산 분야 토론회서 제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항만 개발 및 해양산업 기반 구축,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 강원 일보는 6일 강원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충재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현황과 해양수산 특례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충재 분권연구실장은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과 항만배후단지 지정 을 통해 항만의 산업적 기능을 강화 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양산업, 수산업 육성, 해양도시 화 전략을 구체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 특례를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충재 실장의 발제에 이어 김인호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 조광운 강릉시 수산업협동조합장, 김학소 청운대 교수, 강정호 도의회 농림수산위원, 이동희 강원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또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최우홍 해양수산 정책관과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강원일보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 11 07 ()

04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위한 해양수산분야 토론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토론회가 6일 강원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에서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장, 강정호 도의원,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을 비롯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면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 11 07 ()

12



강릉화폐전시관 개관식 강릉화폐전시관 개관식이 6일 오죽헌 내 현지에서 김흥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김진선 전 도지사,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 김용래·최승순 도의원,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심재빈 강릉노인회장, 최종봉 강릉시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14

영월군, 무곡 윤기영 의병장 공적비 제막

영월문화원 “애국정신 빛나길”
을미의병 충주성 함락 등 활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영월문화원(원장 엄홍용)이 6일 오후 무릉도원면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윤길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곡 윤기영 의병장 공적비 제막식을 마련했다.

윤기영 의병장은 원주시 호저면 출신으로 1896년 을미의병 때에 유격대 중군장으로 일본군의 거점인 충주성을 함락하고 영월과 평창·제천 등 여러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다.

또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전국의 40여 의병대와 함께 의병연합군 창설에 합의한 뒤 수 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궤멸시켰으나, 같은해 11월 19일 강릉 연곡역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부상을 입고 체포될 위기에 직면하자 자결을 택했다. 현재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묘소가 있다. 정부는 윤기영 의병장의 공적을 기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엄홍용 원장은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 바친 그의 애국정신을 역사에 길이 빛내고 후세에 교훈으로 삼기 위해 영월 군민의 뜻을 모아 빗돌을 세운다”고 말했다.

방기준



6일 영월 무릉도원면에서 최명서 군수와 심재섭 군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곡 윤기영 의병장 공적비 제막식을 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19

학교장의 권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의정칼럼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교육지책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회복 4법'을 마련했고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빠르게 학교현장에 적용돼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간 학교 교원들의 교권은 심각하게 추락해 왔으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된 '교권회복 4법' 중 민원 처리를 학교장 책임제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 학교장의 임무인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 '민원처리를 책임지며'라

는 문구가 삽입됐다. 벌써 일부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이 악성 민원 대응을 기피하며 교장선생님 업무라고 주장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장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직원 업무를 분장하는 인사권을 갖는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에 무한 책임을 갖는 자리다.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장이 아니다.

학교내 민원 형태는 교육과정 운영, 전·입학, 성적, 학교폭력, 급식, 체험활동, 시설 등 다양하다. 업무 관련 부서에서 민원을 맡아 처리하되 악성 민원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학교장이 최종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교사 시절 학생 지도 경험을 통해 부장교사, 교감 과정을 거친 교원 중 소정의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초임교사나 평

교사에게 선망이나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기피 대상이 되어서는 학교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 교장이 하는 일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결재나 하는 한가하고 편안한 교원이라고 인식해서는 곤란하다. 학교장은 선생님이나 구성원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하는 잡무처리반이 아니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존재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전반을 관장하면서 기관장으로서 학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와 달리 학교 밖에서도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교권보호는 교사뿐 아니라 교감과 교장의 권위도 보호받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권이 보호받아야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듯 학교장의 권위도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江原日報

2023 11 07 ()

22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노인, 무엇을 해야하는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노인 삶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회와 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노인의 역할’ 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도여성가족연구원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최근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모두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향후 전망되는 노인의 삶 전반적인 변화는 물론 복지 현안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하게 된다.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인구 동향과 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 1인 가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복지 확대,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사업 확대, 연령별·지역별 서비스 욕구 차이에 대한 지원 등 정책 제언에 나서게 된다. 민연경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의미와 기

도노인회·도여가원·본보 주최

8일 도여성가족연구원서 열려

발제·종합토론 갖고 의견 공유

“노인 삶의 변화 실마리 찾길”

능 확대 방향’을 타이틀로 도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와 정책 수요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경로당 역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또 송사리 연

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의 사회기여’ 발제에서 노인 인구 현황,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기여 현황에 대해 논하고 △사회참여 유형 탐색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최승민 춘천시노인회장, 추교정 송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남재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노인의 삶,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건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회장은 “올 6월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노인들은 어떤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의 노인의 삶

과 위치를 직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의 실마리

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2023 11 06 ()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정호(속초), 박호균(강릉),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7일 오전 11시 춘천 샘밭장터에서 열리는 제20회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7일 오전 9시 홍천 내촌면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30회 내촌면민 한마당 큰잔치 및 제27회 노인의날 기념 체육대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11
박호균 도
의원은 7
일 오전 11
시 춘천 샘
밭장터에
서 열리는 제20회 여
성농업인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
석한다.

2023 11 07 ()

01

江原日報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COUNCIL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GANGWON STATE COUNCIL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도민을 위해 실천하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습니다!

11월~12월(제324회 정례회) 2023. 11. 7.~12. 15. (39일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업무보고 병행) · 당면 안전 심의 · 처리 및 현지지찰 등
-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0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도 '빈대 출몰' 우려 선제 대응

조직위, 선수촌 방역장비 설치 '초긴장'
도, 확산방지 소독 지원·예방법 홍보

전국적으로 빈대 피해가 잇따르자 개최
까지 73일 남은 (11월 7일 기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조직위
도 빈대 출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
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빈대 피해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근 원주의 한 모기업 숙소
에서 빈대가 발견돼 방역업체가 소독에
나서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초긴장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2024 강원청소년동
계올림픽 선수단이 사용할 강릉원주대

기숙사 5개동에는 733개의 객실과
2000개의 침대가 설치된다. 방문 선수
단 규모는 모두 2600여 명으로 하루 평
균 1100여 명이 숙소에서 머물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기숙
사 3개동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배작업
을 했다. 겨울방학으로 기숙사가 비워
지는 시기에 맞춰 스팀 및 진공청소기
를 이용해 모든 객실과 침대를 청소할
예정이다. 각 객실마다 빈대 퇴치 스프
레이도 구비한다. 올림픽 조직위 관계
자는 "선수촌 출입구에 위치한 스크린
검색대에 방역장비를 설치해 빈대가 선
수촌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빈대 확산을 막

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강릉 348곳, 횡
성 67곳, 평창 161곳, 정선군 147곳 등
올림픽이 열리는 4개 시·군의 숙박업
소들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
리강화를 일선 시·군 보건소 등에 요청
한 상태다.

김진태 지사도 빈대 출몰 대책을 내
놔다. 김지사는 "지난 1일 원주시 모 회
사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한 게 확인됐
다"며 "빈대는 특별한 감염병을 매개하
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관리 대
상해충이 아니지만 긴급히 특별조정교
부금 1억원을 편성해 대응하려고 한
다"고 했다. 강원도는 빈대 방역을 위해
소독 지원, 예방법 홍보 등을 추진한다.

박재혁 jhpp@kado.net

2023 11 07 ()

江原日報

01

강원자치도~수도권 광역 철도망 구축 ‘급물살’

尹 대통령 “GTX-B 춘천까지 확장” 의지 재표명 주목
2025년 확정 예정인 제5차 계획에 포함 기대감 높여
30년 숙원 용문~홍천 구간도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

강원과 수도권을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관련 사업 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화성 동탄역 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 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 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B 노선 (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 역)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A·B·C 노선은 각각 평택, 춘천, 천안 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TX-B 춘천 연장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GTX-B 춘천 연장은 2025년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야 할 강원지역의 제1순위 사업이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

차역 갈등, 통합기획연구용역 발표 지연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도민의 30년 숙원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남아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선영·이무현·하위윤기자

3면에 계속

2023 11 07 ()

江原日報

03

尹대통령 “GTX-B 춘천까지 연장” - 1면에서 계속

용문~홍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 까지의 34.1km 구간에 추정사업비 총 8,537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상범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강원도, 홍천군 등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유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는 물론 조기 설계 및 착공 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사전타당성조사 통과는 환영 하지만 철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타조사를 면제하거나 예타 통과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 역시 “아직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사업 현실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홍천 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江原日報

2023 11 07 ()

01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 돌아오는 길 역사의 현장 속으로 "110년만의 귀향"

“타임머신 타고 417년 전으로...”

‘110년 만의 귀향’을 주제로 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還至本處) 기념행사가 9일 평창군 보관식 재연행사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간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과 제례,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전문가 학술 프로그램 등으로 나뉘어 성산 오대산을 물들인다. ▶관련기사 2면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월정사, 범도민환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임진왜란(1592년)으로 사고(史庫)들이 불타고 새롭게 오대산사고가 건립된 1606년(선조 39년)과 2023년을 오가는 타임 슬립(Time slip)형 구성으로 진행된다.

9일 ‘평창군 보관식’ 재연 이어

11일까지 ‘환지본처 기념행사’

빨간색 교정의 흔적이 담긴 유일무이한 실록 교정쇄본이 오대산사고에 다다르기 전 도착한 400년 전 강릉군 관아와 현재의 평창군청 모습을 9일 동시에 보여주면서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역사의 연속성과 환지본처의 참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10일 장엄한 실록·의궤 이운행렬이 도달한 월정사에서 현대적 의미의 ‘기록문화 도시 선포식’이 이어진다. 11일 오대산사고에서 열리는 환수 고유제에서는 당시 하늘과 땅의 신에게 실록과 의궤 봉안을 고했던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고향에 도착했음을 알리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이 열리는 데 이어 오후 5시 대법륜전에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토론회도 마련된다.

오석기기자

江原日報

오대산서 펼쳐질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 417년 전으로 타임슬립

2023 11 07 ()

02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還至本處) 기념행사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사진은 오대산문화관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운하는 행렬 (사진 왼쪽)과 2011년 월정사 대법문전에서 봉행된 조선왕조실록 봉안식 모습.



◇실록·의궤 환수 연보

연도	내용
1913	[실록]조선총독 데라우치와 도쿄대 교수 시모토리 결탁, 도쿄제국대학 도서관에 기증
1922	[의궤]조선총독부, 일본 왕실 사무 담당하는 궁내청에 기증
1923	[실록]관동대지진 당시 화재로 대부분 소실
1932	[실록]27책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
1965	한일 문화재 문화협정(4,479점 반환 요구 1,432점 반환, 실록·의궤는 반환 요구 대상에서 제외)
1973	[실록]27책 국보 지정
2001	[의궤]한국학중앙연구원, 의궤 등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 고문서 목록 발간
2006	[실록]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 출범 [의궤]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출범 [실록]일본 도쿄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책 서울대에 기증
2007	[실록]47책 국보추가지정
2008	[의궤]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남북공동 합의서 작성
2010	[의궤]문화재청, 이집트 카이로 회의서 조선왕실의궤 반환 요청, 문화재로 등록 [의궤]간 나옴 日 총리 한일경제정상 100년을 맞아 도서 반환 계획 발표
2011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창립 [의궤]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4종 81책 한국
2015	[실록]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강릉에서 도내 최초 전시
2016	[실록]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4책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 [의궤]보물 지정(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18	[실록]1책(효종실록 孝宗實錄) 환수
2019	[실록]1책 국보 추가 지정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 개관
2021	6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별도인 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 출범 11월 환지본처 '트크&뮤지콘서트' 개최
2021-2022	환지본처 전 국민 캠페인 전개
2022	2월 국회,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의결 6월 국회 입법조사처 월정사 방문, 의견 청취 9월 국회 오대산에 피어난 기록의 꽃, 실록과 의궤 전시 9~11월 월정사, 문화재청에 왕조실록 의궤박물관 기부요청서 제출·소유권 이전 12월24일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예산 통과
2023	11월9일 실록·의궤 평창군 보관식 11월10일 실록·의궤 이운행사, 기록문화도시 선포식 11월11일 환수고유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 실록·의궤 활용방안 토론회 11월12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일반 공개

9일부터 환지본처 기념행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還至本處) 기념행사는 옛 문헌 등 각종 자료 조사를 통해 전통 의식이 지닌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 세대를 넘어 우리 문화재 귀향(歸鄉)의 의미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록이나 의궤를 봉안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태조의 수용(임금의 얼굴그림) 봉안 의식(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9월11일) 등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의식들의 사례를 참고,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텔링해 이번 기념행사의 전반적인 구성을 완성했다. 기념행사는 타임머신을 타고 4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작된다.

◇평창군 보관식 재연행사(9일 오후 2시·평창군청)

조정은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실록을 재간행한다. 이 가운데 1부를 새롭게 설치한 오대산사고에 봉안하게 된다. 실록을 옮기는 임무를 맡은 봉안사(奉安使) 행렬은 평창관아로 향하게 되고, 고을의 수령(평창 군수 행렬)은 예의를 갖추어 이들을 맞이하게 된다. 평창군 보관식에서는 봉안사와 실록을 가득 실은 채여(彩輦·왕실에 의식이 있을 때 귀중한 물건을 실어 나르던 가마) 행렬을 평창군수가 마중 나가 함께 군청으로 들어오는 방

평창군 보관식 거쳐 10일 이운행렬·봉안식~11일 환수고유제 국립실록박물관 개관식·오대산사고본 활용방안 토론회 진행

식으로 진행된다. 취타대와 농악대의 흥겨운 놀이와 함께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실록을 평창군청에 잠시 보관하는 의식을 치르게 된다.

◇오대산사고본 이운 행렬(10일 오후 2시·오대산문~전나무숲길~월정사 경내)

평창군에서 하룻밤을 묵은 봉안사 행렬은 발길을 오대산사고의 실록 수호 임무를 맡은 실록수호총섭(實錄守護總攝)이 있는 월정사로 향하게 된다. 이운 행렬은 '오대성산(五臺聖山)'이 쓰인 오대산문 앞에서 행렬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운을 준비한다. 약 151명이 참여하는 이운 행렬의 길이는 '110년 만의 귀향'을 뜻하는 110m로, 봉안사와 군수, 의장대, 유생, 호위군, 취타대가 동행하는 장엄한 행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대산문에서 전나무숲길을 지나 월정사 특설무대에 도착한 이운 행렬은 붉은 삼베에 감싼 실록을 상 위에 올리고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리고 예의를 갖추는 봉안식을 봉행하게 된다.

◇기록문화도시 선포식(10일 오후 4시30분·월정사 특설무대)

실록을 월정사에 봉안하는 의식이 모두 마무리되면 '기록문화도시 선포식'이 진행된다. 이날 선포식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일제강점기 이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최초의 사례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앞

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제대로 활용해 나가자는 선언까지를 담고 있다.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10년 만의 귀향'이라는 환지본처 기념 행사 전체 슬로건을 그리는 캘리그라피 세리머니와 함께 문화재 제자리 찾기 캠페인에 꾸준히 참여한 가수 임지훈의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

◇환수고유제(11일 오전 10시·오대산사고)

환수고유제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110년 만에 고향인 오대산 품에 돌아오게 된 것을 하늘과 토지의 신인 후토지신(后土之神)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400여년 역사의 오대산사고지에서 봉행된다. 이날 환수고유제에서는 의식을 집전하는 삼현관에, 초원관 김건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아원관 신재국 평창군수, 종원관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이 참여해 우리의 문화재가 돌아왔음을 알리게 된다. 이미 2006년과 2011년 실록과 의궤가 일본에서 환국했을 때 이곳에서 환수고유제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록과 의궤가 다시 서울로 되돌아간 것이어서 이번 환수고유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11일 오후 2시·박물관 야외무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월정사가 환지본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정부에 기부 재납하면서 조성된 곳으로, 새로운 박물관 건물 건립 없이 리모델링만으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게 한 소중한 장소다. 가야금, 해금, 대금 등 국악양상을 SIA M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개관식은 최용현 문화재청장의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테이프 커팅과 함께 역사적인 개관 선포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록과 의궤의 영인본(복사본)을 소장, 전시하던 장소가 400여년 역사의 흔적이 담긴 원본을 전경하는 공간으로 변신하게 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방안 토론회(11일 오후 5시·월정사 대법문전)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와 관련한 그동안의 토론회가 환지본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형태의 토론회로 열렸다면, 이 토론회는 실록과 의궤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고의 노력으로 110년 만의 귀향을 성사시킨 장본인인 퇴우 정년 월정사 주지스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스토리콘텐츠화 전략 △VR,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방안 △축제화 방안 △오대산사고의 활용 방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 토론회는 강원도 지역신문발전사업 지원으로 진행된다.

오석기기자 sgt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04

평창 고랭지 무값 폭락...“밭 정리하고 그냥 뽑아가세요”

김장철 수급안정 영향 분석

생산비도 못 받아 공짜 출하

출하가 투자비용 절반 수준

최근 무 가격이 폭락하며 평창지역 고랭지 무 재배 농업인들이 공짜로 무를 출하하는 등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서 무 1만 3000여㎡를 재배한 최 모 씨는 최근 출하기를 맞아 지난달 30일 무 20kg 700 상자를 수확, 농협을 통해 출하했으나 1상자에 2000원에서 3500원의 가격에 경락됐다는 것. 무의 경우 초기 재배



최근 무 가격이 폭락하며 평창지역 고랭지 무 재배 농업인들이 공짜로 무를 출하하는 등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일 용평면 속사리 무밭에서 인부들이 공짜 무 출하작업을 하고 있다.

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수확 원 정도 들어가 무를 출하하고도 손해가 발생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밭 정리를 위해 밭

을 갈아엎을 예정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무를 뽑아내고 비닐멀칭을 제거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 김치공장 등에서 발정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공짜로 무를 뽑아가도록 했다.

또 진부면 하진부리 김모 씨도 4만 5000여㎡에 무를 재배, 최근 출하하고 있는 중으로 20kg 1상자에 3500원에 6000원의 가격에 경락돼 초기 투자비용과 농약살포비용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가을 고랭지 무 가격이 폭락한 것은 올해 가을철 무 생육에 적당한 날씨가 이어지며 과잉 생산됐고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든 데다 김

장철을 맞아 정부가 김장재료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을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 가격 폭락에 따라 고랭지 재배지 역에서도 1등급 무 1개를 수확해 배달해 주는 가격이 700원~1000원에 불과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 씨와 김 씨 등 농업인들은 “여름내 애써 키운 무 가격이 출하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출하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형편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임 등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김장가격 안정에만 관심이 있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현태

2023 11 07 ()

강원도민일보

05

때아닌 '11월 물난리' 도전역 강풍·호우 피해 속수무책

도전역에 '강풍특보' 피해 속출
인제 계곡서 차량 2대 고립사고
강릉 강풍 안전조치 49건 최다

지난 5일부터 강원도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고립되거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관련 피해가 속출했다. 또 강원도내 전역 강풍 특보가 발효되면서 초속 20m의 강한 바람에 간판이 날아가기도 했다.

■ 요란한 가을비에 강풍까지

6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우량은 춘천 66.5mm, 인제·홍천 64.5mm, 양구 63.5mm, 화천 60.5mm 등으로 영서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비는 7일 오전까지 이어져 영서와 산지는 시간당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비가 내리자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오후 7시부터 팔당댐 초기 방류에 돌입, 초당 800㎥의 물을 내보냈다.

도내 전역 강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바람도 이어졌다. 지역별로 최대 순간 풍속은 양양공항 초속 32.9m, 강릉(경포) 초속 29.6m, 고성(현내) 초속 29.2m, 철원 초속 28.8m 등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 강원도 호우 피해 38건

강원 영서는 간밤 많은 비로 피해도 속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0시부터 6일까지 호우 관련 소방활동은 총 38건으



6일 오전 8시 24분쯤 인제를 가아리에서 불어난 강물에 차량 2대가 침수돼 2명이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재난-도 소방본부

로 도로침수가 34건(춘천 21건·원주 11건·정선 1건·화천 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무 전도 등 장애물 제거 3건이 발생했다. 인제 가아리에서는 차량 침수로 인한 인명 구조도 2건 있었다.

6일 오전 8시 24분쯤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계곡에서 차량 2대가 고립, 소방당국은 A(57)씨 등 2명을 구조했다. 앞선 오전 7시 12분쯤 인제군 인제를 가아리에서는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1t트럭이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B(50)씨가 차 안에 고립돼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춘천은 갑은날 오전 4시 30분부터 7시 6분까지 후평·효자·석사동을 중심으로, 원주도 오전 6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단계·단구·무실동 등지에서 도로 침수로 인한 신고가 속출해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진행했다. 오전 7

시 30분쯤 단구동 아웃렛 일대 도로가 침수돼 아침 출근시간대 차량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원주시는 침수 구간을 통제하고 도로보수원을 급파, 낙엽을 정리하고 물을 빼내는 등 긴급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외에도 단계택시 사거리, 의로원 사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 도로 등 18곳에서 도로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 '강풍 특보' 속 피해 이어져

영동은 강한 바람에 소방당국의 안전조치가 잇따랐다. 특히 강릉은 초속 22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가 속출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했다.

도소방본부가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 강릉 관련 안전조치는 총 92건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강풍에 의해 날아간 간판·나무 등 구조물 제거로, 강릉이 49건으로 제일 많았고, 동해·춘천·원주가 각각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오후 2시 7분쯤 태백시 철암동 한 농공단지에서 4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창문에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선 오전 11시 29분쯤 초당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중립기어로 주차한 경차가 강한 바람에 밀려 2m 높이의 아파트 울타리를 뚫고 추락했다. 강릉시 유천동의 한 건물은 외벽이 건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뜯겨져 나가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단계동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는 나무가 도로로 쓰러져 한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됐으나 긴급 작업을 통해 해소됐다.

강풍으로 인해 전신주 부품이 망가져 정전도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 강릉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3분쯤 춘천시 우두동 일대 아파트 등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본부는 강풍으로 인한 전신주 부품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역종합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05



강풍에 밀려난 승용차 6일 오전 강릉 초당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중립기어(N)로 주차해둔 모닝차량이 강한 바람에 밀려 아파트 울타리를 뚫고 추락했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 19

치솟는 물가 도미노현상 막아야

-정부전담 관리 7개 품목 태부족 추가대책 필요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로 인해 국제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탁물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우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56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3.7%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8월 21.7% 인상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입니다.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발효유, 분유, 치즈 인상은 전년 대비 15.5~11.3%로 뛰어올랐습니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각종 공산품의 도미노식 인상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최근 강원통계지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 10월 114.6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년 대비 5% 이상 인상된 부문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정용품과 가사서비스, 기타 상품과 서비스 등 신선식품은 물론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무려 8.4%로 뛰었습니다.

더욱이 어제 강원 산간지역을 비롯한 춘천 원주 등 12곳에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겨울나기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당장 에너지비용 부담이 시급합니다. 소비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숙박비 및 개인서비스 요금역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대폭 오른 호텔 숙박료는 평균 소비자물가보다 2배 높은 오름세입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식품 물가 오름세로 인해 업계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합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은 소비자 판매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칫 소비 심리를 위축해 결과적으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유통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유리한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업계에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때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않자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우유, 라면 등 7대 품목에 대해 직접 전담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영역이 식탁부터 공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기에 7대 품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체감하는 효과를 내려면 정부의 직접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7 ()

/ 19

군(軍) 유휴지, 지역 발전 활용해야

-2년 동안 2.5배 증가... 의견 수렴 활용안 모색을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으로 군 유휴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방부가 소유한 이들 토지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내 건물과 시설들은 방치되기 일쑤이며, 빈 땅은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유휴지 인근 주민들은 땅과 시설을 지역 발전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군 유휴지를 침체한 접경지 회생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휴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강원지역 내 군 유휴지 시설 면적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군 유휴지 활용 등에 대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군 당국의 소극적인 협의로 미활용 토지 활용 사업은 진척이 더딤니다. 군부대 유휴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846곳(38만 592㎡)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1230곳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축구장 53개를 합한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전국 군부대 유휴 시설은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군부대 유휴지와 시설 증가는 국방

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가 전인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에 해체 및 축소된 군부대는 2사단과 23사단, 27사단, 8군단 등입니다. 도는 국방개혁으로 도내 군 병력이 2만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군부대 해체로 지역 상권은 급속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은 타지로 이주합니다. 접경지 상권은 존폐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은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지 개발을 통해 움츠러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군부대 유휴지와 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사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군부대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선 군(軍) 차원에서 풀어야 할 행정 절차를 끝내야 하지만, 마무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은 군 유휴지와 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江原日報

2023 11 07 ()

/ 19

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선택과 집중이 중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5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건의를 받는다. 도는 올 8월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각 사업별 당위성, 필요성 등을 분석 중이다. 후보사업은 10여개가량 거론되지만 최우선 사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는 경원선(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B 춘천 연장 여부는 올 연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국가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도와 춘천시, 경기지역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총 사업비 규모가 최대 4,238 억원으로 추산돼 지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GTX가 철도 이슈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비로 추진할 수 있는 호기다. 따라서 사실상 수도권과 생활권역을 공유할 수 있고 강원 북부권 교통난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연장 120km로 총 사업비가 2조9,000억원에 달해 강원지역 신규 사업 후보군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도가 추진하는 강원순환철도망 중 마지막 남은 미개설 구간이다. 매년 사업 확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원주~춘천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에 잇따라 반영된 구간이고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수부도시 춘천과 도내 최대 경제도시 원주가 이어지면 경제적 효과는 막대할 것이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홍천 구간에서 연결이 가능한 점도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고속화, 삼척해변~동해항 동해신항선, 원주~만종 간 원주연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신규 추진 사업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江原日報

2023 11 07 ()

/ 19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입성, 강원인 하나 되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 올림픽)를 밝힐 성화가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입성한 후 도내 18개 시·군 순회 투어에 나선다. 10월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가 채화된 지 34일 만이다. 지난달 8일 한국에 도착한 성화는 그동안 서울,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돌며 전국 순회 투어를 진행했다. 성화 투어의 주제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되어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화 투어 여정을 떠난다’, 표어는 ‘연대의 여정(Journey of Solidarity)’이다.

성화 투어는 성인 올림픽 성화 봉송과 달리 도로 위를 달리는 주자 릴레이는 하지 않고 서

울과 부산, 강원 등 18개 시·도에서 성화 주자들이 성화 점화대에 불을 붙이는 점화식만 실시됐다. 성화 투어가 종료된 뒤 남은 20일간 4개 개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횡성)의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성화 투어’가 펼쳐진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내년 1월19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1일까지 세계 70여개국에서 2,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창·강릉·정선·횡성 일원에서 1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청소년들을 체육 활동의 길로 이끌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겨루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다. 더 나아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고 더불어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제부터 강원인들은 하나 돼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원해야 한다.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관계되는 모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큰 발전을 이루었듯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대회의 가치와 이상을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은 평창·강릉·정선·횡성이나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다.

20일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서 ‘특별 투어’

정부 차원 지원과 관심 배가해야 할 때

강원도 세계 동계스포츠 성지로 위상 제고를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국가적 대사다. 이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역

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배가해야 한다. 평창 등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몰렸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은 1년을 채 못 버티고 떠난 곳이 많다. 세계적인 올림픽 개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 이대로 묻혀버릴 처지에 놓인 셈이다. 평창올림픽 효과가 썰물 빠지듯 사라지고 한껏 고대했던 올림픽 특수는 커녕 성장 동력마저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동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동계스포츠의 성지로 확고한 위상을 세워야 한다. 그 위상 제고의 정도에 따라 향후 지역 발전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